

“땅끝해남이 가까워진다” 교통 인프라 구축 ‘착착’

해남군 대흥사 지방도 확·포장사업 2단계 상반기 착공

해남군 해남읍에서 대흥사 구간을 확·포장하는 2단계 사업이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착공한 1단계 사업은 해남읍 대흥사 사거리에서 연동리 호산정까지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1.4km, 104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단계는 연동리 호산정 앞에서 삼산면 평활리 농협 사거리까지 3.7km로, 39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남·대흥사간 지방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천년고

찰 대흥사를 오가는 주요 도로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가 확·포장되면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두륜산도립공원을 비롯한 대흥사권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해남미남축제가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어, 관광객의 교통편의 개선뿐 아니라, 삼산면 평활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도 연결되는 도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군에서는 대흥사 구간 외에도 마산~산이구간 지방도 806호선 13km, 화원 매월리를 시작으로 목포 구동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화원 후산~장수구간 지방도 803호선 2.6km 등 지방도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성~해남~목포 일성아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철도가 내년 개통예정이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 영암군 삼호읍 서호C를 잇는 10.83km 구간, 왕복 4차선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도로공사가 2027년 완공되며, 광주~해남~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2단계 강진~해남 북평구간이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등 서남권 교통 요충지로서 인프라 구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방도 확·포장사업을 비롯해 각종 교통 인프라가 착착 구축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해남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며“앞으로도 전라남도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귀어창업·주택구입 용자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무안군은 오는 15일까지 21일간 2022년 귀어창업·주택구입 지원대상자를 2차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귀어창업·주택구입 용자 지원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2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7년 1월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어촌 전입일 기준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 또는 무안군에 거주한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무안군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 이상의 이수 자격이 필수이므로 사업신청 전 교육 이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용자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귀어 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신용,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무안·박태연 기자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직원 공개모집

순천시는 지난 3월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창립 총회를 갖고 법인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7일까지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 공개채용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승주읍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오는 7월 개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순천 3대 오아시스인 한 축을 담당하는 발효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직원모집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집규모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재단운영 및 연관산업 발굴, 시장개척, 예산회계, 마케팅 등 전략기획 5명, 제품개발 및 R&D과제 수행, 기술지원 등 연구개발 3명, 제품생산기술 지원 및 생산성 향상, 공정설비 운영관리 등 산업화지원 3명을 모집한다.

응모 희망자는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6월 7일 17시까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멸 대응’ 나주천연염색재단, 관계인구 유치 전력투구

천연염색 자격증제, 인증기관 시스템 통해 관계인구 유치

나주시 산하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해 ‘관계인구’ 유치를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113곳(49.6%)을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여수·무안을 제외한 19개 시·군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1일 재단에 따르면 ‘관계인구’는 단기체류나 자원봉사 활동, 정기 방문 등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가는 인구를 말한다.

타지에서 이주해온 ‘정착인구’나

여행과 관광 등으로 인한 ‘교류인구’와는 개념적으로 다른 새로운 인구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관계인구를 연계해 지역 재정을 위한 새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나주시천연염색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방창업과 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천연염색 자격증제, 인증기관 시스템 시행을 통해 관계인구 유치를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 천연염색, 섬유패션분야 각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연, 교재·재료 공급 등을 통해 나주

지역 방문객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관계인구 유치를 기여하고 있다.

재단 측은 “천연염색 자격증 소지자와 재단 인증기관을 통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 방문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문화를 매개로 한 관계인구 증가와 나주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00여명에 달하는 천연염색분야 자격증 취득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제공도 ‘관계인구’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관계자는 “향후 나주시를 제2의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과 고향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유치방안을 개발해 관계인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곡성 세계장미축제 현장서 한복 퍼레이드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 맞춰 지난날 28, 29일 곡성기차마을에서 진행된 한복 퍼레이드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광양중마도서관 ‘청년 독서 살롱’ 시범 운영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2년 ‘청년의 해’ 청년 친화적인 독서모임 확산 기대

광양중마도서관이 2022년 ‘청년 책의 해’를 기념해 청년 책의 해 추진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며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도서관 ‘청년 독서 살롱’ 시범 운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 독서 살롱’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의 중심 세대인 청년을 대

상으로 독서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문 소양과 공동체 역량 획득, 자유로운 토론과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청년 독서모임 운영 지원사업이다.

전국 공공·대학·병영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은 44개 관이 신청해 총 10개의 도서관이 선정됐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중마

도서관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청년 독서 살롱’ 지원대상은 만 19~39세의 광양시민으로, 사업 추진을 통해 퍼실리테이션 전문강사 파견 및 도서 구입비, 운영비 등을 전면 지원받으며 월 2회 격주로 독서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6월 초 신청을 받아 6월 말~10월 총 9회 운영되며, 매회 주제를 선정해 주제에 맞는 책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영암 농작물 가뭄 피해 예방 현장기술지원 ‘총력’

영암군은 최근 지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관리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

1월부터 5월까지 영암군 강우량은 161mm로 평년보다 112mm가 적게 내려 약한가뭄 단계로서 물이 많이 필요한 봄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수분 부족에 따라 감자, 마늘, 양파 등의 생육 약화는 생산량이 감소로 이어진다. 건조한 조건일수록 해충밀도 증가하여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나타날 수 있다.

가뭄피해 예방 대책으로는 건조한 노지 포장에 스프링클러 또는 분수호스를 이용해 10일 간격으로 10mm 내외 물주기를 실시하고 논에서 물대기가 가능한 곳은 가급적 적기 관수해야 하며 인근 하천 등의 잔여 물을 활용할 수 있다. 뿌리가 분포된

지면을 두껍게 복토하거나 볏짚, 비닐 등으로 피복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충의 경우 진딧물, 응애, 총재벌레로 인해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피해를 제거하거나 적용 약제를 살포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작물 파종은 가급적 비가 내린 후 실시해야 농작물 생육에 좋으며 적기보다 늦게 파종할 경우 20~30% 정도 파종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광양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발족

실버봉사자 독서 소외계층 찾아 독서 활동 전개

광양희망도서관은 책을 통해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2022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했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50세 이상의 예비실버 및 실버세대가 문화복지 재능기부자로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독서 봉사활동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전국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라남도도도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도서관은 지난 5월 16일부터 50세 이상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봉사단 활동가 20명을 선발하고 양성교육을 진행 중이며, 양성교육은 책 읽어주기와 책 놀이에 관한 전문적인 과정으로 8월까지 총 12회

운영된다.

활동가는 2인 1팀으로 나뉘어 6월~10월 말 20개 기관(지역아동센터 10, 노인기관 8, 장애인기관 2)을 각 12회씩 방문하게 된다. 기관 방문한 활동가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기관별 대상에 맞는 책을 선택해 읽어준 후 그리기, 만들기 등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미라 도서관운영과장은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2022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가로 신청해주신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면서 “책을 통한 봉사 활동가는 사회와 소통하며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독서 소외계층은 책 읽는 즐거움을 얻으며 독서문화 확산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시, 가족과 함께 도시농부가 되어요

하반기 가족사랑 텃밭작물 체험활동 참가 가족 모집

순천시는 시민들이 텃밭 경작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쌓고 행복한 도시농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 가족사랑 텃밭작물 체험활동’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순천시민으로 구성된 10가족으로, 구성원이 많은 순으로 선발하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을 우선 선발한다.

체험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회(6월 25일, 7월 23일, 8월 27일, 9월 24일, 10월 15일 예정)이며, 신대도시텃밭 교육장 일원(해룡면 신대리 2136)에서 고구마를 심고 기르며 수확해 기부하기까지의 체험 중심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 체험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은 순천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의 참가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6월 1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상반기 가족사랑 텃밭작물 체험활동은 순천시민 10가족이 감자를 키우고 있으며, 6월 중 수확하여 지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도시농업 체험 행사를 준비해 시민들이 건강한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고, 도시민에게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영광 공립군남지역아동센터 개소

아동 건강한 성장·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영광군은 지난달 30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군남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장오 영광군 부군수,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 김춘근 교육장 및 군남 기관·사회단체장 및 이용아동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선 군남면은 아동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아동시설이 부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성제원(대표 김진숙)과 영광군은 건물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군에서 시설을 설

치하고 성제원에서 위탁운영을 한다.

공립군남지역아동센터는 아동 19명 정원으로 주중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특기 적성 예체능활동, 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오 영광군 부군수는 “공립군남지역아동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민간과 공공의 바담직한 협력모델로 자리 매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구현하겠다”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돌봄환경 안에서 꿈을 키워 나가 는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고흥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등교맞이 캠페인

민·관 단체 및 학생 자치회 등 적극 참여



고흥군에서는 지난 9일부터 한 달 동안 고흥중학교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등교 맞이 캠페인’을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이해관 경 감시단, 1388 청소년지원단, 학생 자치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과 고흥교육지원청 등 8개 단체 직원 50여명과 교직원, 학생 자치회 학생

20명이 함께 소독티슈, 학교폭력에 방 홍보물 등을 나눠주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며 함께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5월 청소년의 달 중점 활동으로 ‘학교폭력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치회가 주관되어 자발적인 참여 속에 유관기관에 연대 협력하는 방향으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흥·최혁민 기자